

“자연보호운동 구심점 역할하자”

자연보호협의회, 한마음 대회 개최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회장 장혜광)가 주최하는 한마음대회가 12일 포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박윤국 포천시의를 비롯하여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원, 장혜광 자연보호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협의회 회원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가족들은 계주, 훌라후프, 제기차기, 막걸리빨리마시기대회 등 체육행사를 하며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기분전환은 물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을 하며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보호와 봉사활동을 통해서만 만나던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한마음대회를 통해 만남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 친목도모 및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 상호간 단결은 물론 범시민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는 11월12일 포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김남현 경기공직대상

창의적 대민행정 봉사맨 민원봉사분야 수상

포천시 선단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김남현 행정민원계장이 최근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제14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에서 민원봉사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민에게 봉사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끈 ‘참공복’에 수여하는 경기공직대상에서 민원봉사분야에 선정된 김남현 계장은 지난 85년 공직사회에 입문한 뒤 22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은 물론 남다른 책임감과 공직관을 가지고 도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인 선단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해 지역 사회와 대민행정에 헌신봉사에 왔으며 봉사활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창의적인 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내의 복지시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선단사람적십자봉사회 창립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 정기 자원 봉사의 날 추진, 저소득층 독거노인 합동 철손 및 팔순잔치 개최, 만성통증 무료 이동진료 자원봉사 추진 등이 주요 업적이다.

또한 포천시 승격과 함께 선단동사무소가 개청되면서 개청멤버로 발령받아 지역의 각종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각급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화와 관련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경기공직대상 민원봉사, 자치지원, 주민복지, 지역개발 분야 등 11개 분야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포천시 선단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김남현 행정민원계장이 최근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제14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에서 민원봉사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

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시아버지의 새우강과 콜라



이 중 실 주부 명예저널리스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다. 나는 자라면서 친정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다.

내가 자라던 옛날에 아들이 우선인 그 시대에 우리는 딸만 셋이었다. 친정아버지는 혈통을 이어 갈 아들을 낳겠다고 다른 살림으로 두 집 살림을 하시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자 아예 집을 쟁겨 가지고 처자식을 버린 채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가벼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서도 아버지없는 자식들로 남게 되어버렸다. 덕분에 어머니는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어린 딸들 셋을 키우려니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 딸들은 각기 다 성장해서 배우자들을 만나 가족을 꾸리고, 그들의 지식을 낚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노라면 그 동안 고생했던 지겨운 시절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았다고 행차 하실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젊음을 잃어버린 지금, 온 몸이 성한데 없이나 망가져 버리고, 그 예쁘고 품던 얼굴에는 인생계급장인 주름선이 가득 자리하고있는 내 옆에 살아 계시는 내 어머니의 모습은 가보고 측은 하기만하다. 아니, 지금 내 옆에 살아 계시는 것에 감사한다.

아버지가 안게신 터라 사랑이 그렇게 따뜻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서기 1991년 가을 단군 할아버지가 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 나는 비로소 내 세상인 내 가정 보금자리를 창조했다. 그 날이 바로 10월3일 개천절이면서 우리 결혼 기념일인 것이다.

내 시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백원짜리 새우강과 이백오십원짜리 병콜라는 이때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회사로 출근하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은 나는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해서 빨래 줄에 가지런히 널어 놓은 뒤 진한 원주향을 담은 커피 한 잔을 마신뒤 카펫위에 있는 베개를 베고 내 몸을 누였다. 낮잠 한 숨으로 피곤해진 몸을 잠시라도 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 아가 집에 있나?”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나가 보았다. 시아버지께서 한손에는 작은 봉다리를 들고 계신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어머, 아버지 어쩐 일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래, 차 한잔 주렴” 하시는 것이다. 향긋한 냄새가 피어나는 속차 두 잔을 타가지고 아버님과 마주 앉았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 와서 감사스런 자부에게 좋은 차 대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이 가정 자녀들에게 건강과 많은 축복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다. 잠시후, 작은 작은 봉다리에서 새우강과 콜라를 꺼내시면서 “에! 야 혼자 있으려면 심심할테니 이것을 먹으면서 성경책이라도 읽어보렴”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때까지만 해도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 미 신앙인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작은 사랑에 감복해서 인지 새우강이 너무 고소하고 맛이 있었다.

두 번째 새우강과 콜라를 받은 것은 삼일째 되는 날에 그 다음은 이를 뒤에 새우강과 콜라를 사가지고 오셔서 “에야 네가 타준 속차 맛이 생각이 나서 또 왔단다.” 그러시는 것이다.

꼭 내가 좀 쉬려고 할때마다 오시나간 아니 이제는 매일 오시나간 이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시간에 누워 쉬고 싶어도 나만의 자유시간에 얽매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짜증도 났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의 부드러운 대화는 나도 모른 사이 통명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시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눈치채고 한 말이 “에야, 내가 너를 고연시켜 귀찮게 하는 것 같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나의 한바디 때꾸도 없는 모습에 시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후, 한동안(4일) 오시지 않았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에야! 나다!” 하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반가웠다.

“에야 우리 오늘 점심은 외식하자. 오징어 볶음달걀 어머니?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정식코스 는 아니더라도 작은 레스토랑에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양식 스테이크는 아니더라도,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정도는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달리 너무 작은 아니 소박한 식사로 외식하

자는 시아버지가 의아스러웠다. 그런 나를 무신케 해버린 시아버지의 깊은 뜻은 따로 있었다.

작은 분식집에 앉아 오징어 달걀 2인분을 시키신 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이제 시작인데 무슨 돈이 있겠니 커피는 내가 사마” 하시는 것이었다. 우리 가게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섣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커피 값보다 오징어 달걀 값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후식으로 커피를 사신다면 시아버지는 오징어달걀 값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다.

“아버님 커피는요?” “응, 내가 살 거야” 조금 더 걸었다. 농협 앞 자판기 앞에서 발을 멈추면서 200원짜리 커피를 뽑으시면서 “길 다방 커피 맛도 괜찮단다” 하시면서 농협 앞 데리서 위에 앉으시는 것이다.

“에 아가 다방커피는 너무 비싸지.” 빙그레 웃으신다. 요즘 몇 일 새우강을 못 먹었더니 시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기다려진다고 서슴없이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다. 무거웠던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 다음 날에 예전과 변함없이 시아버지 손에는 새우강과 콜라가 들려 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의외도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친구처럼 내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신 시아버지를 뵈지 못한지도 십오여 이라는 세월이 흘러 버린 지금 세상에서 아나, 내 생애에 있어 새우강과 콜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소중한 선물을 받았었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영원히 새우강과 콜라는 받지 못할 것이다.

부인이 남편에게 신장 이식

운전직업 남편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윤정미(41세) 씨가 자신의 신장을 남편 이음식(47세)씨에게 이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신장 이식 수술로 남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운전직업을 하고 있는 남편 이

음식씨는 17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이 나빠지면 서 건강이 악화되어 십수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살아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위해 입원하면서 “누구라도 가

족이 아프면 기꺼이 할 일”이라며 의연하게 임했다.

주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윤씨가 말로 가족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면서 “각박하지 못한 사람은 요즘 주변에서 보기 드문 부부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이음식 016-286-7558 제보자 오기춘 017-296-6100)

자유기고

김장 위한 새우젓 구입

“연흥 엄마 빨리 준비해 지우네랑 인건으로 새우젓 사러가지.” 김장할 때 넣을 젓갈을 사러 가자고 하여 부지런히 아침을 먹고 서둘러 지우네로 향했다. 강화보문사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젓갈을 구매하기로 했다. 교통체증이 심하던 때가 연재였더니 실을 정도로 확 풀린 송추(에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시원하게 달렸다.

강화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어묵국물로 추운 몸을 따뜻하게 녹이며 여객선에 승선했다. 과거를 던져주고 여러 마리 갈매기가 서로 먹으려고 날아오는 새들과 산 바다가 어울어져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았다.

5분 후 석모도에 도착했다. 뱃길 회회, 인삼밭길, 순무길, 젓갈 등 강화특산물로 가득찬 석모도 작은 섬이라고 생각 한

것과는 달리 드넓은 평야지대로 도로양옆에 넓고 반듯한 논으로 눈이 정리가 되어있었다. 깨끗하게 말린 벼짚을 기계로 모아 묶어서 소먹이사로 한창 작업 중이었다. 누가 목장 하는 사나 아니라고 할까? 소먹이로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어디가나 작업은 못 숙이는 것 같다.

보문사 입구에서 점심식사로 꽃게탕을 먹기로 했다. 알이 꽉찬 싱싱한 꽃게탕을 기대했지만 냉동식품이라 실망하면서 먹었다. 민머루 유원지앞바다에서 높은 하늘과 멀리 보이는 고기 배, 반짝이는 은빛물결에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일상생활에서의 근심걱정을 잊도록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자연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이다. 조그마한 부두 어류정에서 인심 좋은 할머니를 만나 김장

할 때 넣을 생새우와 새우젓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남편과 바쁘게 무, 배추 장사를 해야했기 때문에 우리 집 김장은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 몫이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파를 심어 밭으로 판매했는데 구매하신 분이 미처 작업을 하지 못해 무, 배추를 못 심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집 채마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이다. 강에서 산 싱싱한 생새우와 젓갈에 어울려서 활활하는 훈훈한 인심까지 보태어 직접 김장을 담아 추운 겨울을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보내야겠다. 강에서 돌아오는 길, 벌써 마음은 김장 준비로 바쁘다.



이 은 미 주부 명예저널리스트

웰빙 부사의(不意)

자율(自律)과 타율(他律) 36

나는 학생들에게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의 품격(品格)을 보고 사귀라고 말한다. 품격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격(格)을 말하는 것이다. 또 사람을 분별할 때에 다음 세 가지 기준(基準)을 가지고 보라고 권유한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주로 ‘사람’에 대해 말하는가? ‘물건’에 대해 말하는가? 아니면 ‘아이디어(idea)’에 대해 말하는가? 이 세 가지 유형(類型) 가운데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주로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사귀라고 가르친다. 다음으로 물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사귀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대해 말하는 사람을 사귀되 가끔적이면 이 같은 사람은 멀리 하라고 가르친다.

첫째 ‘사람’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설화(舌禍)에 휘말리기 쉽다. ‘남’의 말을 하다 보

품격이란 사람의 됴됨이를 말한다

면 자연 그 사람의 장단점(長短點)에 대해 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칫 오해(誤解)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 잘못된 말은 평생(平生)을 떠돌며 상대는 물론 본인도 괴롭히게 된다. 사람에게 대해 말을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기왕에 말을 꼭 해야 하는 자리라면 되도록 단점(短點)은 숨기고 장점(長點)만 이야기하도록 하라. 장점만 이야기하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이야기끼리는 있을 것이다.

둘째 ‘물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자칫 품격(品格)을 떨어뜨릴 수 있다. 허세(虛勢)로 비적(美的)이고 속물근성(俗物根性)의 소유자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갑자기 부자가 된 줄부(淸富)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물건을 말하되 단순한 물건에 머물지 말고 그 물건에 대한 유용성(有用性)이라든가 미적(美的)인 아름다움이라든가 ‘아이디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적(創意的)인 발상에 대해 말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한층 더 돋보일 것이고 한층 더 우러러 보일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자신의 말을 절

제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중간은 갈 것이다.

셋째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尊敬)받고 대접받게 된다. 사람에게 대해 말하지 말고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정관념(固定觀念)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타성(惰性)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작품(作品)을 쓰고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討論)을 하도록 하라. 이제 사람 이야기는 그만 하고 ‘아이디어’로 위기를 탈출하는 ‘백기야비’ 프로그램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우리나라 방송(放送)에서 하는 드라마(drama)를 잠시 보라. 어떠한가? 하나 같이 사랑 이야기다. 그것도 정상적인 인간관계(人間關係)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기 아니라 비정상적(非正常的)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다. 이례(例)는 한 된다. 드라마의 소재(素材)를 한 차원 끌어 올려야 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가치관(價値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소재(素材)’의 흡인력(吸引力)을 말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스치고 지나갈 사람과 오랜 세월 같이 할 사람과의 대화(對話)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같이 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가끔씩 말을 아끼도록 하라. 반면 한번 스치고 지나갈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가끔씩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히도록 하라.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찬스(chance)를 놓치지 말고 자신을 알려야 한다. 인상(印象)에 오래 남도록 성의를 다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되 과장(誇張)하지 말고 절제(節制)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은 차원 끌어 올려야 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 임 민국 명예저널리스트

김장

지난 여름 감자를 캔 발에 소똥을 뿌리고 발을 갈아엎어 흙을 기다랗게 돌구어서 배추모를 심었더니 가을의 끝자락인 11월, 속 날씨가 어려면 배추가 되었고 그 옆에 단적인양 두가 씩씩하게 자라났다. 매년 아버님은 여가지가 야산에 텃밭을 만들어서 알타리도 심고 무, 배추, 파 등을 골고루 심어 놓은 탓에 요즘처럼 채소 값이 급증인 때에도 전혀 걱정이 없다. 여름 내내 흘리신 아버님의 땀방울로 한겨울을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할 수 있으리라.

11월 첫째 주에는 알타리 김치를 담고 둘째 주에 김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하루는 배추를 잘리고 또 하루는 무채와 온갖 양념을 넣어 만든 속으로 절인 배추에 빨간 맛을 입힌다. 그날 점심은 절인 배추에 볶은 돼지고기와 생굴정도면 충분하다.

오가는 모든 이에게 간을 바달라면서 건네는 김치보쌈은 그날의 별미다. 맛난 음식과 훈훈한 인심으로 식사를 하고 김장 속 날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 옆에 단적인양 두가 씩씩하게 자라났다. 매년 아버님은 여가지가 야산에 텃밭을 만들어서 알타리도 심고 무, 배추, 파 등을 골고루 심어 놓은 탓에 요즘처럼 채소 값이 급증인 때에도 전혀 걱정이 없다. 여름 내내 흘리신 아버님의 땀방울로 한겨울을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할 수 있으리라.

11월 첫째 주에는 알타리 김치를 담고 둘째 주에 김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하루는 배추를 잘리고 또 하루는 무채와 온갖 양념을 넣어 만든 속으로 절인 배추에 빨간 맛을 입힌다. 그날 점심은 절인 배추에 볶은 돼지고기와 생굴정도면 충분하다.

만 배추가 아무리 비싸도 김장이 힘들다 하여도 추운 겨울 김장김치가 가족들에게 주는 행복지수는 그 이상이라. 김치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추운 날 저녁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김치찌개와 명절에 허한 속을 가득 채워줄 김치만두 속으로의 변신 그리고 고기, 생선 등 그 어떤 것과도 이 가히 한겨울 밥상의 여왕이라 할 수 있으리라. 이만하면 허리가 아프고 손마디가 저리다하여도 욕심내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김장이 끝나면 쫄쫄하게 김장의 피로를 확 풀어버리고 김장김치와 함께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나. 그때까진 추위가 없어야 할텐데...



용 경 자 주부 명예저널리스트